오피니언 리더

'광주특별시'의 성공을 위하여

조 우 성
혜안교육연구 대표
우리중앙교회 장로

오랜 세월 한반도 변방이었던 광주와 전남이 급변하는 현 시대에 첨단 AI기술과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문화 부흥과 경제 발전을 이루는 도약의 길이 비로소 열렸다.

지난 3월 1일 국가균형발전과 세계를 향한 경쟁력 강화의 기틀이 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호남이라는 한뿌리로 유독 역사적 유대감이 깊은 광주와 전남은 지난 1986년 11월 1일 광주와 전남, 광역 행정 조직으로 분리가 됐었지만 40년이 지나 인구소멸과 침체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이루기 위해 다시 통합하게 된 것이다.

통합특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 출범하기 전, 자생력을 갖춘 거대한 도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 조직 재편, 지역 특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 세계 속에 경제문화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업이 융성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 어느 거리를 가봐도 이른 저녁이면 상가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데 꼭 필요한 소비도 대형마트, 대형식당 등에서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쳐야 한다.

최근 중국 등 외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눈에 띈 소식은 외국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지인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등 특색 있는 지방도시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것. 그런데 아직까진 광주와 전남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은 많지 않는 것 같다. 명색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타이틀을 자랑해 온 광주와 한반도 남해안, 서해안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이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싶어 하는 도시 수준이 못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체장은 지혜와 능력을 빌려서라도 지역경제를 살릴 방도를 찾아내야 하고 소득증대를 위해 동분서주해야 한다.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해서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그 자체로 볼거리 있는 이벤트가 된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소비도 일어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체장은 지역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PC 사업과 기업 컨소시엄 사업을 유치해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SOC 사업을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와 지역 생산력 향상과 경기 활성화를 일으켜야 하는데도 단체장이 무능하여 제 역할을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온다. 치열한 경쟁과 변화무쌍한 새 시대의 분기점에서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에겐 경제를 일으키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할 능력이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동안 경쟁할 필요가 없는 특정 정당의 옷만 입으면 당선됐던 우리 지역의 안일하고 편협한 정치 구조는 제거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둔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은 세계지도자들과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성장시킨 삼성 이재용 회장과 같은 안목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출마 예정자들이 왜 출마하려고 하는지, 지역을 발전시킬만한 실력은 갖추고 있는지, 지금까지 사회공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언행이 일치하는지 등을 평가하여 지역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인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언론과 시민사회 합동취재단 인터뷰 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전남광주특별시'에 지원되는 20조원은 27개 시군구가 서로 곶감을 하나씩 따먹듯이 경쟁해서 가져가는 경품이 되면 안된다. 거대한 경제 문화 산업 특별시를 지향하여 광주와 전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전략을 세우고 구현할 수 있도록 미래 핵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첨단 핵심기술 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해야 하며 청년 청소년 등 다음세대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해주어야 한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 간 이익 충돌로 인한 갈등이다.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주 청사 입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배치와 다양한 산업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서 전남의 동부, 서부 지역과 광주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만약 27개 기초단체들의 이해가 상충돼 갈등으로 대립하여 시간과 자원을 헛되게 소비해서 통합특별시가 자립할 기반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20조원의 국가 지원금이 소모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난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화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나라 정의와 사랑이 토대가 되는 '전남광주특별시'로 건설해갈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해가면 좋겠다. 사명을 가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듣고도 교만하여 죄악의 길에서 서성거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전남광주특별시'에서 특별하게 일어나,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바란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우리나라 전통 당류인 조청과 현대식 당류인 물엿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곡식을 원료로 한 전통적인 당류인 조청 (造淸)이 있다. 자연산의 꿀을 청(淸)이라 부르기에 조청(造淸)은 인공적인 꿀이라는 뜻이다.

조청은 곡식으로 만든 우리나라 고유의 천연 감미료이다. 조청은 전분 성분의 곡류를 엿기름에 포함된 효소로 분해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한다. 엿기름을 전문적인 용어로 맥아(麥芽; malt)라고 하는데, '발아시킨 보리'라는 뜻이다. 맥아(麥芽)는 보리(麥)에 싹(芽)을 틔워 건조시켜 만드는데 아밀라아제 효소가 들어 있다.

곡식의 녹말(전분)을 맥아의 아밀라아제 효소를 이용해서 맥아당으로 분해(당화)한다. 맥아당(麥芽糖; maltose)은 엿당이라 부르며 포도당 두분자가 연결된 이당류이다.

조청은 맥아를 이용한 제조과정에서 정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제당이다. 주성분인 이당류인 맥아당(엿당) 외에 약간의 섬유질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갈색 빛깔을 띠게 된다. 현미나 쌀, 옥수수 등 원재료에 따라 여러 종류의 조청이 있고, 생강, 호박, 도라지 등 여러 부재료를 넣기도 한다. 조청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은 식혜나 엿을 만들 때와 같다. 식혜를 농축시켜 조청을 만들고, 조청을 더욱 졸이고 공기를 섞어 넣어 엿을 만든다. 이 세가지 감미식품의 차이는 조리시간에 따른 수분함량의 차이이다. 물론 엿을 옥수수 전분으로부터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성분의 측면에서 식혜와 조청과 엿은 같은 식구이다.

조청과 비슷한 감미제로 물엿이 있다. 물엿은 전분(녹말)을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얻기에 전분 시럽이라 부르기도 하고, 주로 옥수수를 사용하기에 옥수수 시럽(콘시럽)이라 부른다. 전분을 분해한 주성분은 맥아당(엿당)이고 포도당, 덱스트린을 포함한다. 물엿 제조를 위해 전에는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씨눈(배아)을 제거한 옥수수 전분을 사용한다.

이때 원재료로 저렴하게 수입한 유전자 변형 GMO 옥수수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당화가 된 상태이기에 이런 GMO 제품을 해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 카사바 뿌리에서 추출한 타피오카 전분을 원료로 많이 이용하기도 한다. (타피오카 펄은 버블티에서 주로 사용)

조청과 물엿을 비교하면, 맥아당이 주성분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조청은 전통적인 식품으로 여러 곡류를 원료로 구수한 풍미와 감칠맛의 거무스름한 색의 비정제당이다. 반면에, 물엿은 전분(녹말)을 사용하여 대규모 공업적 정제과정을 거친 단맛 위주의 정제당이다.

물엿은 조청과 달리 무색이고 점성을 줄여 어떤 요리에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든다. 조청이 물엿에 비교하면 풍미 뿐만 아니라 미네랄 등 성분의 측면에서 건강한 감미제라 하지만, 문제는 맥아당(엿당)의 당도가 설탕 단맛의 30% 정도이기에 이를 많이 섭취하게 된다. 조청이 설탕보다 덜 달고 전통적인 감미료이기에, 당뇨병이나 혈당관리에 좋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 오해이다. 맥아당(엿당)(110)은 포도당(100)이나 설탕(65)보다 당지수가 더 높다. 조청과 물엿 둘다 설탕보다 훨씬 빨리 혈당을 올리기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원재 교수
- 서울대와 KAIST 졸업
- KIST 연구원으로 근무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IUC) 박사학위 취득
-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
- LG화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근무
- 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약학대학 학장과 임상약학대학원장 역임

선교칼럼 96

지금 뉴욕시장은 무슬림 맘다니-1

장찬익 선교사
아일레선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저서. 이슬람선교의 돌파구

2025년 11월 5일 뉴욕시장선출에서 6년만에 56% 과반수 투표율로 민주당 후보 무슬림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선출되었습니다. 무슬림이 서방세계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시장이 된 것은 영국 런던에 이어서 드디어 미국의 뉴욕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조란 맘다니 당선자는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중에 누구든지 건드리려면 우리 모두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쿠란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뉴욕시장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뉴욕시장에 당선된 주란 맘다니는 누구일까요?

그는 1991년 아프리카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인도 출신의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고 7세 때에 미국 뉴욕으로 아버지를 따라 건너왔는데 아버지는 탈식민주의 연구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마무드 맘다니(Mahmood Mamdani) 컬럼비아대 교수이고 어머니는 뉴스핌 영화사 감독입니다. 그는 맨해튼의 사립 초중고를 졸업하였고 201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보든 대학교에서 아프리카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재학 시절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대학 내 팔레스타인 학생 정의 지부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힙합 래퍼로 활동을 하다가 정치계에 입문하여 저소득층 상담사로 일하였고 뉴욕주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정치계에 입문한지 5년만에 뉴욕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뉴욕의 현 상황

뉴욕시는 자본주의의 심장부입니다. 부유한자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가난한 자는 엄청난 가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지 있지만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임대료는 하늘까지 올라가서 공실은 많아졌고 텅 빈 거리에 밤이면 노숙자가 공원에서 지하터널 통로에서 빼곡하게 누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심해져서 교통비는 텍사스 보다 2배로 비쌉니다. 뉴욕은 지금 회복과 몰락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의 선고공약

이럴 때 뉴욕시장 후보로 조란 맘다니가 나타나서 무상교통비와 무상복지시리즈를 발표하면서 무명의 맘다니는 하루 아침에 유명한 민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논리적인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유권자들에게 납득되어서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거공약은 부유한 자들의 법인세는 7%에서 9%로 올려서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상버스와 무상지급과 무상교육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뉴욕시를 새롭게 회복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거전략전문가나 부나 권력도 없이 분명하고 뚜렷한 사회복지주의를 외치면서 뉴욕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란에 손을 얹으면서 반드시 뉴욕을 사회복지주의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취임 연설을 하였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신입(편입)생 모집(주·야간)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062)266-0153 http://gsccc.or.kr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총회 총회장 정서영목사 입니다. 합동개혁 총회신학은 청교도 개혁 신학의 요람으로 사명자들에게 철저한 보수적 신앙체계로 교육하여 확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여러분!
본인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총회 신학은 년중 계속 수업을 실시하므로 언제 든지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총회장 정서영 박사

최고의 교수진
신학과 목회연결

모집안내 신학과 목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별	모집학과	모집정원	응시자격
신학부 (졸업후 전도사 사역)	신 학 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목회학과(주,야)	00명	남·여 세례받은 자 평신도, 장로, 사명자 특별전형
신학연구원 (졸업후 목사 안수)	주·야간반	00명	신학부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모든 수업은 광주총신에서 하며 졸업 등 모든 학적관리는 본교인 서울 남현동 총신에서 주관함.
학술원	목회학과	00명	본 신학연구원 졸업자

광주총신 특별사항
▶ 신학부 : 4년 8학기 또는 2년 8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 신학연구원 : 2년 4학기 또는 1년 4학기 (1년 4학기 제 수업)
시간표 홈페이지 참조 (http://gsccc.or.kr)
▶ 주야간반 : 매주 월/화 (주간: 오전 10시, 야간: 오후 6시)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 남,여 목사안수 / 각종 장학혜택 : 부부학생특혜
▶ 최고의 교수진 / 설교전문가 / 실천목회자 양성
▶ 교회개척,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
▶ 한교연, 한기총, 한장연, 세기총 가입 교단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총회신학 광주캠퍼스
2. 원서접수 : 수시접수 (062-266-0153)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료 없음)

교수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 전공분야 및 박사학위 소지자
· 모집인원 : 0명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신학의 전당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
광주 총회신학. 연구원장 : 임강원 목사

수시 등록 접수중
광주광역시 각화동 476-1번지 062)266-0153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교단 내 지도자양성을 위해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입니다.